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3월 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늘 함께하므로 참으로 행복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 김애순 -

제가 오랜 시간 변함없이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탄성전 환경미화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권사입니다. 대성전을 중심으로 구역구역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자원하여 헌신 봉사하는 여러 회원과 봉사자들을 보면 저 또한 이에 감화되어 더 열심을 내어 봉사를 합니다.

땀 흘려 화단을 예쁘게 가꾸는 모습, 따로 배운 적이 없지만 함께 의논하여 예쁘게 성전 꽃꽂이 장식을 하는 젊은 봉사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로 직임을 맡은 임원들 대부분이 젊은 구역장님들입니다. 젊은 분들이라 그런지 빠르게 배우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며 전임자들의 도움속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봉사할 일이 많을 때는 자녀를 데리고 부부가 같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모습에 더욱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대를 이어 열심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절로 뭉클해집니다.

저는 대대로 유교의 사상과 전통을 따르는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사를 일 년에 열 번 넘게 지내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 미신을 좇아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시기가 되어 1983년에 결혼하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때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기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여 딸, 아들을 낳고 사는 중에 시댁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희 부부는 전셋집에서 살다가 애써서 장만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신없이 짐을 나르고 있을 때 이사한 동네에 사시는 은혜와진리교회 구역장님이 오셔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바빠서 귀찮아 하며 거절했는데 구역장님은 그 뒤로도 계속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동네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 주중에 구역장님을 따라 수원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 시간 내내 제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창피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예배와 구역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되었고 남편과 아이들도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많이 울었습니다.

1992년에 구역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역에서 성도님들을 돌보며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저의 하루 일과이자 삶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것처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는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서 권사와 장로가 되어 더 많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상을 숭배하던 종갓집 저의 친정집에서 제사를 완전히 폐하였습니다. 30년 넘게 오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인내와 소망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의 세워지는 성전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하고 신실한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저는 크고 깊은 감동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래 전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고 교회학교에서 자라던 어린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하여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힘껏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합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저와 가족 모두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교잔동) T.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분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양로 144 T.041-555-3731
- 전주(명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0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운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9단원 : 시험을 이기는 성도)

(제39과) 시험은 왜 다가오는가?

- **본문** : 야고보서 1장 12-15절
- **요절** :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14절)
- **찬송** : 393장(새찬송가 350장), 395장(새찬송가 342장)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과 회의를 가져다주며 이것은 육체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혼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만치 못한 인간관계로, 핍박 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만나고 어떤 때는 그 시험이 나를 삼킬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때야 말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로 삼고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시험을 이겨내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지만(요 1:12) 그 순간에 갑자기 인격이 급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고 성도는 그러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도록 절제하며 참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며 시험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시험에는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시험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험에서도 망칠 것이 아니라 이를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계 2:10).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솔직한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 7:22~23)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타락한 본성을 벗고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티가 많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할 수 없으며 면제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약 1:14)라는 말씀과 같이 시험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 성도는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마 4:1~11, 막 1:12~13, 눅 4:1~13)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당하시면서 시험을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은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며,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나약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욕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시험이라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까이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6~7)는 말씀처럼, 시험은 비록 우리의 부족 때문에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처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금광석으로부터 금을 추출해 내려면 뜨거운 불로 돌을 녹여 불순물과 금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은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는 말씀처럼,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주저하거나 실족 당하지 말고 시험을 잘 이기도록 성령님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고 시험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시험은 더 이상 성도의 적이 아니며 오히려 성도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어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